

|오늘의 말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_ 시 23 : 6

통 권 제 312호
발행인 _ 담임목사 박원호
편집인 _ 미디어위원장 박대길
발행처 _ 주님의교회 홍보출판부
발행일 _ 2012년 12월 30일

함글함글

www.pcltv.org

TEL. 416.5181~2 FAX. 416.5180

땅 끝까지 가르쳐 지키는 한해

‘교육’에 중점을 둔 2012년 주님의교회 조사

“땅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교회 2012년 표어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19~20) 라는 말씀에 따라 “땅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였다. 연초 박원호 담임 목사는 “교회 교육이야말로 교회를 통해 사회 전체를 회복하는 사회적 사명의 근간”임을 강조하면서 올해도 작년에 이어 ‘교육의 해’로 정해, 교회 교육을 체계화하는 방안을 계속 추구할 것임을 밝혔다. 이 방침에 따라 교육과 관련한 여러 사업이 진행되었다. 그중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정신학 원과의 논의를 통해, 교문 옆 공간에 다목적 교육공간을 건축한 일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정신학원과의 깊은 연대와 협력관계를 상징하는 의미 있는 성과이기도 하며, 그간 교회 내부에서 제기되었던 부족한 교육공간을 보충하는 바람직한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국제교육선교센터와 미래목회세미나

또한 2011년 개설된 국제교육센터를 통해, 교회에서 그간 진행해왔던 목회 활동을 교육에 접목시키는 다양한 방법이 모색되었다. 비록 뚜렷하고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되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하겠으나, 이를 통해 기존에 운영해왔던 성인 대상의 12단계 성경공부와 예수 친구 사역 등의 교육과정들을 청년, 청소년, 어린이로 확장하고, 나아가 해외 각지의 선교 활동에 이르기까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왔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성경 공부와 제자화 훈련을 위

한 다층적인 교육과정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선언적 의미로, 국제교육 선교센터에서 주관한 ‘2012 미래목회

타고 등장하기도 했다. 예배당 안팎이 영상으로 연결되어, 교회 자체의 곳곳이 무대가 되고 5,000여 성도 모두가 등장

한 시간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분야 별로 나누어 8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청소년 사역원의 교사들을 위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10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비전트립을 위해 150여 명의 교우들이 두어 달에 걸친 어려운 교육을 받고 해외 선교의 초석을 다지는 먼 길을 떠나기도 했고, 아직은 단혀 있는 북녘 동포들에게 믿음을 전파하기 위한 다채로운 노력이 북한선교팀에 의해 계속되었다. 그동안 주로 교회 지원을 담당했던 국내선교부에서는 이미용팀, 사진팀과 더불어 지역 교회를 직접 방문하여 장수 사진촬영과 이미용 봉사, 태풍에 무너진 교회 복구에 직접 앞장서는 등의 은혜로운 사역

2012 땅 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_ 마 28 : 20



세미나’가 11월 19일 애니 엘리스 홀에서 개최되었다. 전국 각지의 목회자 70여 명을 포함, 교육선교에 관심있는 주님의교회 성도 등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세미나에서, ‘교육선교’의 의미와 이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방법론이 개괄적으로 검토되었다.

믿음의본질 되새기는 다양한 길들

한편 2012년 상반기의 가장 큰 화제가 되었던 것은 단연 4월 8일의 부활절 예배드라마였다.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의 이 특별예배는 전체 12장으로 구성되었다. 4개월 전부터 500여 명 이상의 성도가 기획, 연출, 연기, 조명, 의상, 무대예술 등을 맡아 준비했고, 직접 제작한 의상만 해도 400여 벌에 이르며, 공연 당일 정신학원 정문부터 대예배당까지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거리가 재현되어, 로마 병정이 말을

인물이자,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 된 뜻 깊은 행사였다. 한국 교회에서 전례가 없었던 이 예배드라마는 CBS와 기독교공보를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한편 5월 5일 어린이날에는 열 번째 무지개잔치가 열렸다. 특히 이날은 전교인의 가족 잔치이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잔치로 기획되었다. 새터민 가정, 가락 어린이집, 다문화 가정에서 온 550여 명과, 이제는 지역 명물이 된 무지개잔치를 찾아온 지역 주민 450여 명이, 주님의교회 1,700여 성도와 함께 청명한 5월의 하루를 즐겼다.

섬김과 나눔의 길, 사역의 다양한 모습

9월부터 열린 사역박람회는 올해 새롭게 구성된 행사였다. 예년의 경우 어느 주일 하루에 열렸으나, 이것이 일회성 이벤트에 머무르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성도들이 사역의 여러 현장에 대한 충분

으로 지역 주민들을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 되게 하는 큰 몫을 하기도 했다. 눈이 오면 주차봉사부에서는 새벽부터 운동장의 눈을 치웠고, 주방부에서는 어두운 주일 새벽에 솥을 달고 육수를 끓여 한 그릇의 국수를 맛있게 대접했다. 교회 안팎의 학생들을 위해 이름 밝히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주일학교와 반가운 학교의 수업을 맡았고, 예배부와 안내부에서는 항상 밝은 얼굴로 예배당 안팎에서 강단을 꾸미고 안내를 맡았다. 호스피스팀은 삶의 마지막 시기를 힘겹게 맞고 있는 분들과 함께 하면서 믿음의 길을 안내했고, 이 세상 소풍을 마치고 천국가는 길을 환송하기 위해서 상례팀은 마치 오분대기조처럼 전국 어디에나 다다하지 않고 방문, 위로예배로 유족들의 마음을 적셨다.

그렇게, 2012년이 저물고 있다.

<편집부>

주간 목회력

<겨자씨와 함께 하는 금요기도회>

-1.4(금) 저녁8시 / 대예배실

<신임 사리집사 교육>

-1.13,20(주일) / 오후2시 / 소예배실

<아버지학교 지원자 신청>

-1.13~2.17 / 소년부실(3층)

<신임 겨자씨인도자 교육>

-1.23(수) 5회 예정

<송구영신예배>

-12.31(월) 밤11:30 / 대예배실

<새벽기도헌신자 추가 신청>

-1층 안내데스크 / 문의 : 박혜성 목사

함글함글이 뽑은 2012년 10대 뉴스

여느 해처럼, 참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어 갑니다. “땅끝까지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슬로건과 함께 한 주님의교회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함글함글>에서 선정한 10대 뉴스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편집자>

1. 주님의교회 정관 제정



1월 1일부터 교회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님의교회 정관이 새로 제정, 시행되었다. 이 정관에서는 주님의교회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구현”하며, “선교와 구제를 교회 창립 정신의 근간”으로 제시하고, 청소년 사역, 예배당 무소유, 교역자와 장로 임기제, 무기명 헌금, 예산의 50%이상은 대외 구제에 사용함을 명시했다.

2. 12단계 성경공부 종강과 성지순례



2012년 5월 13일, ‘하나님 나라’를 주제로, 2008년 3월 5일 시작해서 4년에 걸쳐 진행해왔던 ‘12단계 성경공부’의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그동안 1,876명이 참여했으며, 어느 한 단계 이상 수료한 성도는 1,615명이었다. 제12단계에 해당하는 성지순례는 1차 4월 17~27일, 2차 4월 19~25일, 3차 4월 24일~5월 4일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연인원 177명이 참여했다.

3. 정신학원 다목적 교육공간 건축 확정

11월 7일, 공동의회에서 창립 25주년 기념 사업의 하나로 정신학원의 다목적 교육공간 건축 계획이 확정되었다. 교문 옆 교사에 이어 건축될 다목적 교육공간은 교육선교의 초대 모델인 정신학원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굳게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다. 2013년에 34억의 예산으로 착공될 이 공간은 도서관, 체육시설 등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4. 절기의 회복 위한 부활절 예배드라마



4월 8일 부활절, 주님의교회에서는 절기의 회복을 위한 작은 초석으로 ‘드라마예배’의 형식을 빌린 특별 예배를 드렸다.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이 특별예배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순간을 온 성도가 배역으로, 스텝으로, 찬양으로 함께 경험하는 놀랍고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이를 위해 4개월 전부터 500여 명의 성도가 준비하고 참여했다.

5. 예수 친구 사역 뿌리기수 수료



12월 16일, 3년간에 걸쳐 훈련된 예수친구사역 뿌리기수 수료식이 진행되었다. 예수친구사역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요 15:15)말씀에 따라 2009년 뿌리기수로부터 시작한 제자화 훈련 과정으로, 매년 1기씩 모집하고 있다.

6. 아프리카에서 베트남까지, 비전 트립



7월부터 8월까지, 아프리카 케냐에서 코스타리카, 키르키스스탄, Z국, 베트남, 헝가리 등지에서 비전 트립이 진행되었다. 총 150여 명에 이르는 장년부, 어와나트랙, 청년부, 중고등부 등이 따로, 또 같이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10일에 걸쳐 현지를 방문하여, 의료, 교육, 집짓기 사역, 현지 교회 지원 사역 등을 진행했다.

7. 직접 찾아 섬기는 국내 선교팀 봉사활동



2012년 들어 국내선교팀은 단순히 후원금을 보내는 것 뿐 아니라, 지역교회의 실태를 직접 방문 파악하고, 미자립교회가 자립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며, 태풍에 무너진 교회에서 직접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벌였다. 특히 완도 같은교회에는 직접 교인들이 방문해서 열흘 동안 숙식을 같이하며 예배당과 사택의 무너진 지붕을 새롭게 고치기도 했다.



8. 하나님의 머슴, 향존직 선거

10월 7일부터 14일까지 2012년 주님의교회 향존직 선거가 진행되었다. 주님의 일을 담당할 봉사자를 뽑는 이 선거에서 1차 1289명이, 2차 1050명이 투표를 했고, 유효투표를 가리는 1, 2차 투표 결과, 장로 4명, 권사 17명, 안수집사 18명이 새로운 향존직으로 피택되었다.

9. 사랑의 털모자와 북한 돕기 바자회



올해에도 교회의 섬김과 나눔 활동이 여러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생명달리기 사랑의 털모자 전시회'가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로비에서 개최되어, 300여 명이 참여했다. 완성된 모자는 독거노인과 아프리카의 신생아들에게 보내질 예정이다. 북한 선교를 위한 바자회가 10월 27일 열렸고, 10월 14일에서 11월 4일까지의 추수감사절 쌀나눔행사에는 170명이 참여, 현금 6백3십여 만원과 백미 327kg이 하늘꿈 학교 등에 전달되었다.

2. 16년만에 <함글함글> 300호 발간



1992년 <나눔의 소식>으로 출발한 소식지 시절을 거쳐, 1996 8월 <함글함글>이라는 이름으로 펴낸 지 16년만인 2012년 4월 8일 부활절에 드디어 300호를 펴냈다. 2007년 이후 격주간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2007년 1월 27일에 통권 200호를 기록한 바 있다. 현재 <함글함글>은 한번에 보통 2,000부 정도를 발행하며, 자연보호를 위해 재생지를 사용한다.

천국의 길 환송하는 오분 대기조 _ 천국 가는 성도와 가족 섬기는 ‘장례팀’

주님의교회의 곳곳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베전 4:10)는 말씀을 따라, 드러나지 않은 가운데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많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함줄함울에서는 ‘섬김의 기쁨’으로 낮은 곳을 향하는 이 숨은 청지기들을 찾아 소개합니다. 그 여섯 번째, 천국 가는 성도와 가족 섬기는 ‘장례팀’ 편입니다. <편집자>

불시에 떠나는 먼 길, 천국 환송 길

“교회에서 오후 3시 출발입니다. 군산이구요, 1교구 유성훈 목사님이 함께 가실 겁니다.” 장례팀장을 맡고 있는 이상욱 안수집사의 전화다.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급했다. 우선 주일 오후 같은 시간에 잡혔던 약속을 취소했다. 군산이면 아무리 짧아도 오가는 데 대여섯 시간 이상은 걸릴 터이니, 돌아오면 아마도 한 밤중일 터, 마음의 준비가 필요했다. 보통 성도들 가정에 상이 나면, 교구 목사에게 연락이 간다. 교구 목사는 장례팀장에게 연락을 하고, 장례팀장은 팀원들, 교구장, 겨자씨장과 권사, 안수집사들에게 연락한다. 장례식장의 거리가 멀 경우에는 겨자씨에서 참석이 어려울 때가 많다. 대부분 장례팀 팀원들이 참석하게 된다. 지방의 경우 17명에서 25명 내외가 문상을 하게 되는데, 이중 15명에서 20명 정도가 장례팀이다. 장례팀은 모두 30명인데 2팀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이해숙 권사가 또 한 팀의 팀장이다. 버스는 오후 3시에 출발하기로 했으나, 4부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다 보니 결국 30분이 늦었다. 33인승 버스에 30명이 타고 출발한다. 전에는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가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은 가까운 지역이 아니면 인원에 따라 렌트를 한다. 장거리 운전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천국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겨울 해는 짧다. 서해안 금강 하구에 있는 항구도시 군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었다. 아주 먼 곳에 온 듯한 느낌이다.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유족이 반가이 맞는다. 승용차로 따로 오는 팀이 있어 좀 기다리다가 위로예배를 드렸다. 주관 교회가 주님의교회가 아닐 때에는 위로예배만 드리고 올라오면 되지만, 주님의교회에서 주관할 때에는 입관예배, 발인예배, 화장예배, 안치예배 순으로 예배를 네 번 드린다. 2012년 1월 1일에 있었던 김 모 성도의 상례 때에는 주님의교회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네 번의 예배를 다 드렸다. 새해 첫날이었지만 총 84명이 참석했다. 이 모든 것은 상례 일지에 기록하는데, 올해에만 12월 8일 현재 98회의 상례가 있었다. 그중 한 번만 장례팀이 문상을 못했는데, 추석

전날에 남원에서 난 상이어서, 차가 밀려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경우였다. 할 수 없이 교구목사와 장례팀장만 문상했고, 유족이 상례 후 서울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렸다. “의외로 지방에서 상이 많습니다. 부산, 창원 등도 갈 때가 있고요, 진도까지도 가본 적이 있습니다.” 이상욱 집사가 덤덤하게 말한다. “한번은 보은에서 상례를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대구에서 상례 일이 있어 차를 돌려 바로 대구로 간적도 있지요.” 교인이 적지 않다 보니, 상례도 일주일에 평균 두세 번 이상이다. 어떤 날은 하루 4번이 생긴 날도 있다. “결국 저는 그 중 세 군데 밖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분이 다른 한 곳엘 갔지요.” 계절과 시간을 가리지 않는 일이니, 고생이 심할 것이다.

이 모든 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나 그이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늘 감사한다. “처음에는 의무처럼 생각했지요. 하다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신다는 것을 느끼곤 하죠.” 이해숙 권사는 말한다. 항상 적절한 인원이 적절한 방법으로 채워지고, 춥고 더운 것도 늘 적당하다. 멀리 갈수록 유족들은 서울에서 찾아온 성의와 관심에 고마움을 느끼면서, 혹 믿음의 가정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느낀다. 이것이 바로 전도가 아닐까? 하나님의 사랑을 상례를 통해 유족에게 전해주는 것이다.

상이 발생하면, 장례팀장은 교구목사와 상의하여 장례절차와 계획을 준비한다. 모든 장례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고, 문상객을 인솔한다. “교회의 문상객이 적어 걱정을 하면서 가면, 유족들이나 다른 문상객이 많아요. 반대의 경우에는 그쪽 문상객이 적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물론 유족에게서는 일체의 금일봉 등 사례를 받지 않는다.

“겨자씨에도 참석하지 않고, 사역도 안하는 성도의 상례에는 중점적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가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 가운데에서 정작 저 자신이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장례팀 사역에 많이 참여해 주세요.” 늦게 저녁을 먹고 출발한 버스 안, 서울에 가까워지면서 고속도로가 많이 막힌다. 실내등을 꺼 놓은 탓, 몇몇 성도는 낮게 코를 골고 있다. 먼 길 돌아오는 길 위에서 나직이 간증하는 이해숙 권사의 권유가 가슴에 와 닿는다. <편집부>

‘오 베들레헴 작은 골’ 영광과 감동으로 피날레 장식

_ 2012년 성탄축하음악예배



충성이 돋보이는 성도님들이야말로 천군천사가 아닐까? 이번 음악회의 특징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소규모 오케스트라로 편성하되 다양한 관악기음을 낼 수 있는 ‘엘렉톤’이라는 악기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할 수 있겠다. <노대홍 기자>

지난 12월 19일 저녁 7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우리교회 본당에서 2012년 성탄 축하 음악예배가 3부 살롬찬양대 주관으로 열렸다. 살롬찬양대 지휘자 이동훈 안수집사가 작곡한 찬양곡 ‘오 베들레헴 작은 골’이 첫 선을 보이는 연주회라는 점에서 종교음악계의 비상한 관심 속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참석한 성도들에게 한없는 감동을 안겨준 무대였다.

1부 예배에 이어 2부 연주에는 헨델 작곡 2장과 이동훈 작곡 12장을 칸타타 형식으로 완성도 높은 음악을 연주함으로써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고 커튼콜은 익숙한 캐롤송을 불러 흥을 돋우며 함께 박수치며 즐거워한 자리였다. 1장 ‘영광 나타나리라’로 시작하여 12장 ‘찬송영광 오늘나신 예수께 아멘’에 이르기까지 독창과 합창이 이어지는 동안 수준 높은 방청매너 또한 주님의교회 성도다웠다는 평을 들었다. 제18대 대선을 마친 개표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가득 메운 믿음과

에덴 보육원을 다녀와서



에덴 보육원을 방문하기 시작한 것이 벌써 만 3년, 매년 두 번의 경기를 했으니 벌써 6번째 경기를 치루게 되었습니다. 에덴 보육원은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 위치한 설립된지 60여 년된 보육원으로, 원장님과 선생님들 모두 기독교인이며, 원내에 교회를 세워 아이들을 믿음으로 보육하는 곳입니다. 원생은 전체 70명 정도이며,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합숙생활을 합니다.

처음 경기를 치를 때만 해도 서로 서먹서먹하기도 하였고, 주님의 교회 축구선교부가 한참 앞서다가 아이들이 의기소침할까 하여 고의로 실점을 하여 비기는 것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만, 회를 거듭할수록 대학에 간 형들까지 가세하고 원생들도 사전에 연습을 많이 하여 축구선교부가 이기기 힘들어지더니 요즘엔 아이들이 더 축구를 잘 하여, 축구선교부가 이기기 어렵습니다. 또한, 첫 방문 때는 작았던 체구의 아이들이 훌쩍 자라서 집사님들보다 훨씬 커진 모습들을 보면서 대견스럽기도 하구요, 축구선교부원도 지지 않으려고 기를 쓰고 열심히 합니다. 보육원 방문 축구라고 하지만 지는 것은 기분이 나쁘거든요.

올해도 봄의 방문 축구는 어른들의 강짜와 아이들의 선한 양보로 가까스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방문을 할 때마다 같이 식사나 간식을 나누면서 즐겁게 담소를 하기는 하지만, 정작 축구 시합을 할 때는 초등학생이나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축구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형들 때문에 밀려서 시합에 나서지 못하는 눈망울을 볼 때면 왠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했던 것이 유소년 축구팀 아이들도 데려와서 보육원의 초등학생들과 시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연무읍까지는 안 막히면 2시간, 막히면 기약이 없고, 게다가 어린 아이들이라 긴 여행길에 애들이 힘들지 않을까 망설였는데, 그래도 신청을 한 아동이 12명이나 되어 함께 축

구 시합을 하러 떠났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남자 애들이 축구를 할 때 여자 애들은 뭘하지 하는 기우와 예닐곱 시간은 차를 타야하는데 아이들이 견뎌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의 유소년 축구팀 12명과 부모, 형제 그리고 축구선교단원까지 30명이 버스에 올랐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하는 순간, 걱정은 그저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밝게 맞아주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 김밥, 순대 등으로 배를 채우고 모두 논산 도로공사 잔디구장으로 이동하여 축구 시합을 시작하였는데, 보육원의 초등학생들이 부족하여 보육원생들은 중학교 1학년 남학생과 중고등부 여학생까지, 유소년 축구팀은 중학교 형까지 합하여 15:15로 축구시합을 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팀의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부터 보육원의 여자 고등학생까지, 그리고, 지기 싫어하는 유소년 축구팀과 보육원의 정열적인 남자 초등학생까지 정말 열심히 뛰면서 축구를 즐겼습니다. 승부욕도 대단했구요. 두 게임 끝나고 지쳤을까 하여 또 뭘 수 있느냐고 물으니, 누구 하나 빠지지 않고 더 뭘 수 있다고 나서서 그렇게 세 게임 내내 그 넓은 운동장을 지치지 않고 뛰어 다녔습니다.

아이들의 축구 시합 중간 중간에, 축구 선교부원과 부모님으로 이루어진 팀과 보육원의 중고등학생과 보육원 출신 대학생 형들이 경기를 치를 때는 여학생들과 초등학생들은 송혜영 집사님과 함께 아트 풍선 불기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첫 축구 시합이라서 축구복과 축구화 등이 없는 아동들을 위해서 아이들의 신체 치수에 맞는 운동복과 축구화 등을 선물하고 돌아왔습니다. 벌써 6번째 보육원 방문 축구 시합을 하면서 서로 안면을 익혀가기에 더욱 살갑게 다가오는 아이들과 유소년 축구팀 및 풍선 아트에 일가견이 있는 송혜영 집사님(유소년 축구부원의 엄마)과 함께 하였기에 초등학생들과 여학생들까지 누구하나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아주 즐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오고 가며 길이 막혀 7시간 가량을 차에서 보내야 했고, 그로 인해 엄마 아빠의 눈에는 다크 서클이 생겼지만, 다음 시합은 언제 하느냐고 보채는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어른의 스승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외엔 찾아와서 함께 체육 활동을 하면서 놀아주는 어른들이 없어서 기다리는 아이들을 생각하면 몇 시간 차타는 것이 그리 힘들게 느껴지지 않구요. 그리고, 행사 준비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사고 없이, 그리고,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도록 필요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아이들과 어른들의 마음을 주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소년 축구팀 총무 박준명/ 팀장 정권>

늘푸른대학 성경읽기반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늘 푸른 대학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시편 90:10)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읽기 반은 각 반중에 최고령 반으로써 제일 많은 신 분은 93세로서 두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일 년 동안 매우 성실하고 건강하게 과정을 잘 마치게 되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주 성경을 한 장 한 장 읽어 온 것이 어느새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섯 권의 모세오경을 다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을 알 수가 있었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영원한 불변의 진리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늘푸른반입니다. 만날 때 사랑합니다. 헤어질 때 사랑합니다. 사랑으로 뚫돌 뭉친 성경읽기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어떤 학생은 지나가다가 큰소리로 성경 읽는 소리에 들어오신 학생도 있고 어떤 학생은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진다 하며 어떤 학생은 열심히 소리 내어 성경 읽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하며, 또 어떤 이는 모두들 사랑스럽고 자랑스럽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랑은 명예도, 돈도, 건강도 아닙니다. 다만 일생동안 수고와 슬픔과 신속히 날아가는 세월 속에서 얻은 백발만이 우리의 자랑이고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늘 푸른 대학이 존재하는 동안 우리는 멋지고 아름다움을 간직한 성실한 학생이 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읽기반 반장 황증자>



Short Biography

My full name is Samuel Terrance Weddington, and I am a Teaching Elder/Minister of Word and Sacrament in the Presbyterian Church, USA. My father was Sam Weddington, and he was a Pentecostal pastor when I was growing up. As many of you know, my son's name is Samuel Weddington as well. There have been many Samuels in my family, and we have a long history of service to the church going back almost three hundred years.

Nonetheless, those God calls aren't always cooperative. At the age of 16, I left the Pentecostal church and was not involved with the church for a long time. However, in college I discovered that I had a passion for the study of Theology and Philosophy. When I studied Theology and Philosophy, I discovered that I could be a person who valued reason, while still being a person of faith. This was a turning point in my life. I passionately studied Theology, and after graduation, I decided I wanted to go to seminary at Union Presbyterian Seminary. My initial plan was to pursue a Ph.D. in Theology and teach.

While I had always known that God wanted me to serve the church, I always refused to serve the church because I did not want to be a minister, so I did my best to avoid becoming one. Yet, God would not let me go, and at the age of 25, I became a member of the Presbyterian Church, USA. At this time, I also met my lovely wife, Eungyoung "Grace" Kim, who began seminary when I did. We were married in our second year of seminary. While in seminary, I began to serve the church as an interning pastor, preaching every Sunday to small congregations.

When I graduated Union Seminary with my Master's of Divinity degree, I was also accepted into the Ph.D. program in Theology at Union. My plan was to study, get a Ph.D., as well as serve a local congregation. However, while I was serving a small church community and starting my study, my father became ill with pancreatic cancer. My wife and I had a hard choice to make. We were both accepted into advance study programs, but we couldn't study, serve the church, and take care of my father at the same time. We decided to leave school and take care of my father- it was one of the best decisions we have made as a family.

By this time, both of our children were born (Sammy and Young-Ji), and our whole family spent a lot of time with my father before he died in April of 2007. I preached his funeral. It was hard for me to preside over his funeral, but I could do it by the grace of God. God gave me the grace to realize and to share with my family a fundamental realization that has radically altered my thinking about life, God, relationships and faith. At my father's funeral, I told my family that while we will miss him and mourn his loss, we need to realize that he never belonged to us. My father, all of us, in fact, belong to God, and the time that we spend with one another is purely a gift from God- EVERYTHING is a gift, without exception.

Today, I am glad that God has given our family the gift over the past two years to serve your church. We have received the grace of fellowship in working together for the building up of God's kingdom. Our prayer is that God will help us continue in God's paths in accordance with God's will.

The joy of Christ,
Rev. Samuel Weddington

부르심의 길에 서서 _13

제 이름은 사무엘 웨딩튼, 미국 장로교의 목사입니다. 저의 아버지, 샘 웨딩튼, 역시 제가 자랄 때 목사님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 시듯이 제 아들의 이름 역시 새뮤얼 웨딩튼입니다. 이렇게 저희 집안에는 샘 웨딩튼 이 많이 있고 저희 집안은 3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교회에서 섬겨왔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리 쉽게만 다가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16살이었을 때 저는 한동안 교회를 떠나기도 하였고, 대학에 가서야 제가 신학과 철학을 공부하기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학에서의 신학과 철학 공부를 통하여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인간의 이성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신 학공부에 몰두했고 대학 졸업 후 유니온 장로 신학대학원(Union Presbyterian Seminary)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원래의 계획은 신학을 공부하여 대학이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었습 니다. 하나님이 제가 교회에서 섬길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한편으로는 알고 있 었지만 저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 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리 쉽게 놓아주시지 않았습니다. 25살 되던 해 저는 장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또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던 제 아내를 만나 게 되었습니다. 신대원 2학년 때 결혼을 하고 조그마한 시골교회에서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저는 박사과정으로 진학하려 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대로 공부를 계속하며 교회를 섬기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막 공부를 시 작하려 할 때 저의 아버지가 췌장암으로 투병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저의 아 내와 저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 대학원에 합격을 하였 지만 공부하며 교회를 섬기고 또 제 아버지를 돌보는 일을 모두 할 수는 없었습 니다. 우리는 학교를 떠나 아버지를 돌보는 일에 전념하기로 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저희 가족을 위해 내린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무렵에 새미와 영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고 우리 온 가족은 제 아버지가 2007년 4월에 돌아가실 때까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의 장례식 설교도 제가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아들인 제가 인도하는 것 은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은 제 게 하나님과 믿음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 근본적인 깨달음을 주셨습니 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전 가족들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잃은 것 을 슬픈 일이지만 한편으로 그분은 한 번도 우리에게 속한 분이 아니셨다는 것 을 알아야한다고 말입니다. 저희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이 땅에서의 시간은 하나님의 선물 이었습니다. 진실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예외 없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이 저희 가족에게 지난 2년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선물을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함께 일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길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기쁨이 늘 함께하시기를,
사무엘 웨딩튼 목사

예수친구사역 뿌리기수를 수료하며

멋모르고 나선 여행길

처음에는 무슨 부름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 친구란 말이 생소 했지만 친한 친구를 생각하며 그렇게 우리 6명의 벗들은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후원자 카드는 우리를 도망치지 못하게 하는 울가미로 보였습니다. 그것을 직감하면서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친구로 얻고 싶은 즐거운 갈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친구가 없는 시대에 친구를 얻는다는 상상은 여행을 설레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절망과 분노, 씨름 그리고 위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우리의 소풍 길……. 우리의 한계 앞에 많이 절망했습니다. 그 여정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는 화석 같은 신앙의 껍질을 벗기 위해 밤이 깊도록 목사님과 씨름했습니다. 우리를 달려오게 했고, 또 달려가게 할 신앙의 관습으로부터 벗어나가 힘들어서 아파했습니다. 본질과 멀어져 있는 우리 신앙 양태를 바라보며 많이 절망했습니다. 익숙한 관성이 지배하는 우리 주변을 보며 분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처와 실수를 책임하지 않으시고 살며시 손으로 덮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성령님께서서는 목사님을 인도 하셔서 부족한 우리의 몸 부림을 끝까지 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은 신앙 엘리트들이 내뿜는 논리적 구호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직 부족한 우리의 손을 서로 내밀고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야 할 성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처 나고 소외된 거친 손들이 서로 맞잡고 성전 이루어 함께 춤추는 그 잔치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내 신앙 경험의 강화로부터 참 자유의 길로

믿음은 내가 알고 있는 신앙경험을 더욱 튼튼하게 강화하여 내 믿음에 갇히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사람을 향해 열리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나의 포기과 해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머리에 머물러 있어 가르칠 대상이 먼저 생각합니다. 입술이 현란한 구호를 외치고 만족에 빠질까 두렵습니다. 가슴과 손끝에 믿음의 증명들이 많이 묻어내려면 더 많은 길을 가야 함을 압니다. 그리고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길을 나섭니다. 나의 불완전 보다는 주님의 완전함을 보고 길을 나섭니다.

소풍 길의 친구들

저는 2년반 동안 지나온 행적을 확인해 보고픈 마음이 들었습니다. 파일을 뒤지며 이런 메모 저런 메모를 발견하며 그 순간을 회상해 보았습니다. 어떻게 이 긴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을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완주할 수 있었던 힘의 실체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의 친구 되심이 그 힘의 실체였다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풍 길에 주님께서 친구 되어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소풍 길 외롭지 않도록 뿌리 친구를 불러 주심도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많이 다른 우리를 길 동무로 부르셔서 주님 바라보는 친구 되게 해주셨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12/7일 저녁 예친 일정을 마치고 수련 실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환청처럼 제 귀에 한 문장이 반복되어 들렸습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 그날 밤 세족 식의 그림 언어는 유튜브 재생 파일처럼 “너희도 이같이 하라!”를 반복 하며 가슴속 유튜브에 영구 보관되어 버렸습니다. 가슴속에 영구 보관된 그 동영상은 우리의 남은 여행 길에 수시로 나타나 “너희도 이같이 하라”를 반복할 것이 분명합니다. <김낙균 안수집사>

섬김과 나눔 소식



2012년도 섬김과 나눔 사업 중에서 늘푸른 대학과 가락동 제1 경로당 무료급식과 거여동, 마천1.2동 독거 노인 영양죽 배달이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2012년 12월 4일(화) 늘푸른대학 제4기 수료식을 감탄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졌다. 매주 화요일마다 반갑게 만나 예배를 드리고, 특강을 듣고, 특별활동을 하며, 화평과 기쁨을 쌓아온 2012년. 특별활동 발표회와 전시회를 아름답게 마치고 보람과 아쉬움을 남기고 2013년 3월 5일 제5기 개강을 기다린다. 12월 18일(화)에는 무료급식 화요일과 수요일 급식 봉사자 모두 모여 그동안 함께 나누었던 무료급식 종료를 하였다. 2013년부터는 가락동 시영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하여 무료급식은 마천동 남천 경로당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그

동안 정이 들었던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작은 성탄 선물을 드리며 봉사자들과 경로당 어르신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며 준비된 떡과 맛있는 식사를 드시고 가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서 서로가 커다란 아쉬움을 남겼다. 12월 17일(월) 오전 10시30분 거여3단지 아파트 경로당에 모여든 죽배달 봉사자 17명은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죽과 선물을 각자 승용차에 싣고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거여동, 마천 1·2동으로 출발하였다. 이 날은 2012년도 마지막 죽 배달행사로 평소의 월요팀과 목요팀뿐만 아니라 (사)섬김과나눔에서 함께하여 한 해의 섬김을 마무리를 하는 날이었다. 무척 추웠던 날씨가 풀려 포근하였지만 꾸불꾸불 동네 고개 길에는 잔설이 남아있어 지난 주에 내린 폭설로 길이 미끄러워 배달을 포기하였던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첫 번째 집인 다세대주택 계단을 올라 “딩~동~딩~동” 벨을 누르자 문을 열고 죽과 선물을 받아 드신 할머니가 너무도 고마워하시며 “약으로 먹겠습니다.” 하고 함박 웃음을 지으시자 함께 한 봉사자들도 정말로 보람과 기쁨을 느꼈다. 선물 꾸러미는 영양죽, 곶감, 누룽지, 발열내의, 양말, 털모자, 장갑과 김치 한 상자로서 교회의 지원과 뜻있는 분들의 기부 물품이며, 특히 털모자는 늘푸른대학 주관으로 케냐 어린이용

으로 교인들이 직접 뜨개질 한 것 중 일부를 기증한 것으로 모두가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것들이다. 이렇게 두 시간 가까이 골목을 누비며 찾아가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꼭 건강하셔야 해요.” 하면서 잠깐씩 대화도 하고 손도 잡아드리며 돌아본 가정마다 아프고 딱한 사연들이 많았다. 중풍이나 암 당뇨 등 지병환자, 극빈자가 되신 은퇴 목회자나, 길거리에서 폐품수집을 하는 분, 아들 며느리가 기출을 하여 할머니가 어린 손자를 키워 손자가 아픈 할머니 식사를 챙기는 경우와, 여러 집에서 전기요금을 아끼려고 방에 불을 끄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안타깝기 짝이 없었다. 이들은 복지의 말단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로 구청의 추천을 받아 2009년부터 주님의교회에 섬기고 있다. 이에 배달 봉사자들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생명사랑의 사명을 다 하려는 모습들이 귀하고 아름다워 보였다. 내년 2월부터 영양죽 배달을 다시 시작하는데 목요일 봉사자가 부족하니 많이 자원할 것(연락처: 이형구집사/010-3711-3940)을 당부하였고, 유성훈 목사는 “나누면 채워지고 감사가 넘치며,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였다. <신형섭 기자>

은퇴 장로회 _ 목회자들을 위한 위로와 감사의 시간 가져

2012년 12월 18일 오후 6시 교회 찬양대 연습실에서 은퇴 장로회 주관으로 목회자와 그 가족을 위한 위로행사가 열렸다. 작년에 이어 올해 3회를 맞은 이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눠 음악회와 애찬으로 준비되었다. 피아니스트 이지현의 반주와 해설로 진행된 1부 작은 음악회는 메조소프라노 정수현, 바리톤 김진추가 초청되어 우리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 성가 등을 열창하여 목회자들과 가족들에게 아름다운 노래로 위로를 전하였고, 이어서 저녁식사를 함께 나누며 즐거운 교제를 가졌다. 추운 날씨였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좀처럼 한 자리에 모이기 힘든 목회자들과 가족들이 사역의 바쁜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함께 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김주현 기자>



새생명 축제

12월 16일 2부와 3부 예배에서는 새생명 축제를 통해 새로 예배에 참석한 분들을 축하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9월부터 겨자씨별로 준비된 사역자를 함께 모여 다짐하며 준비하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노방전도를 시작으로 길에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소개하며 차와 준비된 작은 선물을 나누었다. 처음에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이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새생명을 찾아가는 일들이 즐거웠다. 새생명축제 예배가 끝난 후 3집회실에서 다과를 나누며 목사님들과 사진을 찍으며 옛 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을 믿으며 앞으로의 생애, 생명의 은총 더욱 빛나기를 기도드렸다. <신형섭기자>



농어촌 미자립교회 승합차 기증

농어촌 선교팀에서는 권사회에서 지원을 받아 12월 5일(수) 전라북도 김제 복지교회에 승합차를 기증하였다. 김제 복지교회는 총회의 미자립교회 평준화 시책으로 주님의교회에서 지원하는 교회이다. 시무하는 김종식 목사는 휠체어 생활을 하며 사모의 도움 없이는 활동이 전혀 안되는 중증 장애인으로 농촌 목회를 22년 동안 계속하고 있다. 목회 활동을 하며 교회 출입과 사역의 어려움을 알고 주님의교회에서 직접 교회를 방문하여 차량을 구입 뿐만 아니라 종합보험료와 기타 등록에 필요한 수수료 모두를 감당하여 주심에 교우님들 모두에게 감사를 전했다. <신형섭 기자>



광고

2013년 담당교구목사변경

2013년부터 담당교구목사가 새롭게 편성됩니다.

▶ 1교구: 신임목사 ▶ 2교구: 권대선 목사 ▶ 3교구: 김용웅 목사(신임) ▶ 4교구: 최방은 목사(신임) ▶ 5교구: 조정현 목사 ▶ 6교구: 유기영 목사 ▶ 7교구: 이강찬 목사
▶ 8교구: 장수현 목사(신임) ▶ 9교구: 유성훈 목사 ▶ 2030부부교구: 임창진 목사

겨자씨와 함께 하는 금요기도회

2013년 1월부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겨자씨의 부흥을 꿈꾸며 '매월 첫 주 금요일'에 금요기도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월 4일 금요일 저녁 8시~10시 / 장소: 본당 / 대상: 전교인

아기나들이가 내년부터 새롭게 바뀝니다

아기나들이를 새해부터는 더욱더 감동과 은혜로 준비하고자합니다.

▶ 대상: 아기부모가 등록교인이어야 합니다 ▶ 시간변경: 광고시간에서 '설교전 시간'으로 변경
▶ 신청방법: 교구목사에게 1주일전 제출 ▶ 신청서류: 아기와 함께한 가족사진1부 제출, 아기를 향한 기도제목 2-3가지 제출

주방봉사자 시상

2013년 1월 1일부터 봉사위원회에서는 겨자씨 출석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상할 예정입니다.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알곡상: 겨자씨 재적인원 전원 참석(100%) / 담임목사님이 선정한 도서를 겨자씨원들에게 1권씩 증정
2. 우수상: 겨자씨 재적인원의 50%이상 참석 / 실만한 물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3,000 * 참여 인원수
3. 우수교구상: 1~9교구(전체) 2회전 한 뒤 참석율이 가장 우수한 교구 / 실만한 물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300,000 쿠폰

* 선정기준은 주방에 비치하는 "겨자씨 주방봉사 출석부"에 출석표시된 것을 근거로 합니다. (문의: 주방부총무 이원철 안수집사 010-2678-2007)

* 함즐함을 선정 _ 올 해의 한자

전화신앙 상담 ☎ 416-5183

화 ~ 토요일 : 오전 9 - 12시, 오후 1 - 5시 (토요일은 오전만)

教 (가르칠 교)

다사다난했던 2012년이 저물어간다. 주님의 교회 함즐함을 편집실에서는 올 해의 漢字로 <教:가르칠 교>를 선정했다.

1. 宣敎(선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하여 힘쓴 한 해였다. 國內宣敎(국내선교)로는 농어촌교회 지원에 중점을 두었고 海外宣敎(해외선교)사역으로는 단기봉사활동 뿐만 아니라 베트남, 캄보디아, 케냐에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선교의 계기를 만들었으

며 國際敎育宣敎(국제교육선교)센터를 설립하여 현지목회자를 양성하는 체제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였다.

2. 學園宣敎(학원선교) 및 靑少年宣敎(청소년선교)의 집중적인 사역을 위하여 정신학원에 건물을 신축하는 한편 다양한 운영프로그램도 개발 중이다.

3. 多文化家庭宣敎(다문화가정선교)에 힘을 쏟고 있으나 異邦宗教(이방종교)의 유입으로 신앙의 정절이 훼손될 우려도 있으므로 각별한 교육과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이런 점에서 掲載(게재)빈도가 가장 많았던 教字가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 노대홍 기자 _ rdhteacher@hanmail.net >